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정찰위성발사준비위원회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가 제시한 국방력발전 5대중점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자위적방위력강화투쟁이 강력히 전개되고있는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주개발국과 국방과학연구기관들, 각급 대학 및 과학연구기관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망라된 군사정찰위성 1호기 발사를 위한 비상설위성발사준비위원회는 자기사업을 계속단계에서 힘있게 추진해나가고 있다.

조선로동당 총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동시에 나라의 우주군사 및 과학기술개발에서 뚜렷한 진일보로 된다고 하시면서 우주연구분야에서 계속해 달성해야 할 전략적목표들을 구체적으로 천명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군사정찰위성보유의 전략적성격에 대하여 재삼 강조하시면서 미제와 남조선피뢰악당들의 반공화국대결책동이 발악적으로 가증될수록 이를 철저히 억제하고 국가를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주권과

의인민공화국 국무원장이신

개발국, 비상설위성발사준비위원회

군사정찰위성 1호기를 돌아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였다.

정당방위권은 더욱 당당히, 더욱 공세적으로 행사될것이라고

5월 16일 비상설위성발사준비

위원회사업을 현지에서 지도

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는것은 조성된 국가의

하시였다.

사업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

나라의 군사기술력을 획기적으

로 상승시키기 위한 중대사업

안전환경으로부터 출발한 철박

로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와

우주환경시험을 최종적으로

준비위원회가 맡은 임무와 역

정부의 최우선적인 국방력강화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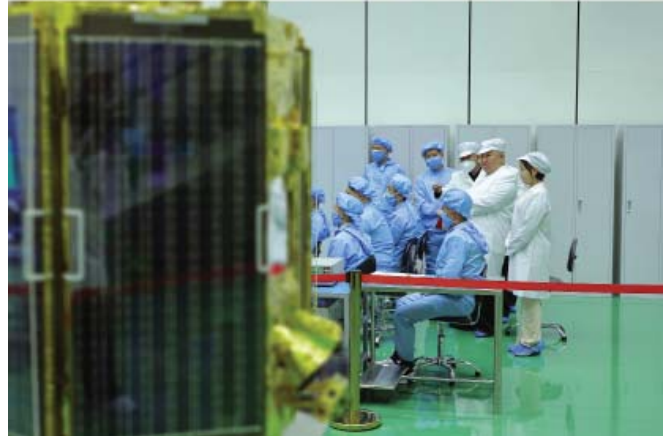
과학교육부의 주요간부들과 우주

마치고 탑재준비가 완료된

할을 책임적으로 수행하고있는

정책의 정확한 실천과정인

본사기자



이 땅우에 인민의 광원을 일떠세우기여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해방후 보통강개수공사의 첫 삽을 뜨시어 인민이 주인된 이 땅우에 위대한 전변의 새 역사를 펼쳐주시는 때로부터 어느덧 70여년의 세월이 흘렀다.

지금도 귀가울이던 해방된 이듬해 보통강개수공사의 착공식장에 나오시어 하신 격동적인 격려사에서 전체 평양시민들이 우리의 민주수도 평양을 모범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이 애국적인 자연개조사업에서 위대한 힘을 발휘하리라라는것을 굳게 확신한다고 하시며 공사참가자들과 평양시민들의 심장을 뜨겁게 울려주시던 위대한 수령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이 귀전에 들려오는듯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해방후 받기하시고 몸소 지도하시어 진행된 보통강개수공사는 공화국의 강하천건설 및 정리사업을 비롯한 자연개조사업에서 새 기원을 열어놓은 위대한 력사적사건이다.

해방전 보통강은 해마다 장마철에 조금만 비가 내려도 큰물이 쳐서 보통강변 특히 토성량과 서평양 및 대

라령(당시)일대는 물바다로 되었고 인민들은 물란리를 겪었다. 1942년에 있는 큰물 때만 하여도 성안의 5만여명의 주민들이 인명피해를 비롯한 많은 물질적피해를 당하였으며 시주변의 2 000여호의 농가도 물에 잠겨 인민들에게 헤아릴수 없는 고통을 주었다. 하기에 사람들은 보통강을 제련의 강, 원한의 강, 눈물의 강, 한숨의 강이라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어린 시절 보통강을 오가시며 이곳 인민들의 비참한 생활을 가슴 사무치게 보시었고 괴어린 함일전의 날에도 보통강변인민들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을 잊지 못해하시었다.

강도 일제를 때려부시고 해방된 조국에 개선하신 그해 12월 어느날 개원을 앞둔 평양학원을 현지지도하시고 돌아오시던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팔골다리를 건너시어 길 왼쪽에 있는 봉화산으로 오르는 갈림길에서 차를 멈추시었다.

차에서 내리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라령일대에 있는 관자집들과 초라한 집

들을 바라보시며 이 고장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비참한 생활을 하였다고 하시며 못내 가슴아파하시었다.

이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이제는 나라가 해방되었으니 주름잡힌 이 고장 사람들의 얼굴에도 환한 빛을 주어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몸소 보통강개수공사를 받기하시었다. 비범한 통찰력과 천리혜안의 예지로 보통강개수공사 설계의 결함을 꿰뚫어보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친히 봉화산정점에 오르시어 아무리 큰비가 와도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한 만년대개의 설계안도 가르쳐주시었으며 보통강개수공사착공식에 참가하시어는 격려사를 하시고 몸소 첫삽을 뜨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쓰신 첫 삽은 해방된 이 땅우에 부강한 새 조국을 일떠세우기 위한 거창한 대자연개조의 첫 삽, 제련의 력사에 중시부를 찍고 조국의 통성변영과 인민의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는 뜻깊은 첫삽이였다.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과 은덕을 길이길이 전하기 위하여 보통강변에 《보통강개수공사기념탑》

을 세웠다.

그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다.

이 날 보통강은 영원히 물란리를 모르고 인민의 행복의 웃음만이 꽃피는 락원의 강으로 전변되었다.

인민에 대한 한없이 뜨거운 사랑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탁월한 령도의 손길아래 보통강강이 솟을을 더 살기 좋은 인민의 명당으로 바꾸어주시려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첫 시기에 보통강정리공사를 인민군대가 맡아하도록 하여 주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보통강변의 명당자리에 만수교 고기상정위치를 잡아주시고 훌륭히 완공되도록 하여주시였을뿐 아니라 만수교청량로로 접도 세 개의 요구에 맞게 훌륭히 개건보수하도록 하여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쳐 주신 창조와 건설의 대변영기는 보통강변에 보통강수산물상점, 미세상점, 만수교고기상점, 삼지연관현악단 극장 등 상업봉사시설들과 문화정서생활기지를 우후죽순처럼 일떠세워 보통강변의 경관을 더욱 눈부시게 하고

있었다.

이뿐이 아니다.

인민의 웃음소리 높아질 그 날을 하루빨리 앞당겨오시기 위해 몸소 밭기자, 설계가, 건설주, 시공주가 되시어 현대적인 보통강안다락식주택구집을 앞장에서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해 지난해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기 위대한 김정은시대의 문명과 부흥을 상징하는 만복의 보금자리로 솟아올랐다.

평양에서 제일 맛있는 곳이라는것이 반영되면서도 아름다운 구슬다락이라는 뜻이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크게 버리고 준비해온 숙원사업입니다.

《올해 건설부문앞에 나선 가장 주된 과업의 하나인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은 지난해에 시발을 댄 우리 당의 숙원사업인 평양시 살림집전망표수행의 두번째 공시안 동시에 이 지구에 새로운 현대적도시구집을 일떠세우기 위한 첫단계의 건설입니다.》

《모든 건설대상들이 다

얼마전에는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태양절을 맞으며 화성지구엔 눈부신 새 거리가 일떠서고 인민들의 흥겨운 새집들이풍경이 펼쳐져 온 평양시, 아니 온 나라를 흥성있게 했다.

이 황홀하고 눈부신 화곡을 바라보는 인민의 격동된 심장마타에는 수도 평양에 5만세대 살림집을 일떠세우기 위한 뜻깊은 착공식들이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이 오늘날도 뜨겁게 울리고있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수도 평양에 5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하는것은 수도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크게 버리고 준비해온 숙원사업입니다.》

《올해 건설부문앞에 나선 가장 주된 과업의 하나인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은 지난해에 시발을 댄 우리 당의 숙원사업인 평양시 살림집전망표수행의 두번째 공시안 동시에 이 지구에 새로운 현대적도시구집을 일떠세우기 위한 첫단계의 건설입니다.》

《모든 건설대상들이 다

수도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것이고 우리의 영광스러운 수도, 어머니평양을 위한것이기때 우리 당은 다같이 흥겨운 새집들이풍경이 펼쳐져 온 평양시, 아니 온 나라를 흥성있게 했다.

이 황홀하고 눈부신 화곡을 바라보는 인민의 격동된 심장마타에는 수도 평양에 5만세대 살림집을 일떠세우기 위한 뜻깊은 착공식들이서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연설이 오늘날도 뜨겁게 울리고있다.

《위대한 우리 국가의 수도 평양에 5만세대의 현대적인 살림집을 건설하는것은 수도시민들에게 보다 안정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해주기 위하여 우리 당이 크게 버리고 준비해온 숙원사업입니다.》

《올해 건설부문앞에 나선 가장 주된 과업의 하나인 화성지구 1만세대 살림집건설은 지난해에 시발을 댄 우리 당의 숙원사업인 평양시 살림집전망표수행의 두번째 공시안 동시에 이 지구에 새로운 현대적도시구집을 일떠세우기 위한 첫단계의 건설입니다.》

《모든 건설대상들이 다

세기는 바뀌었지만 해방된 이듬해 보통강개수공사 착공식장에서 하시던 그날의 위대한 수령님의 연설은 인민을 행복의 금방석에 앉혀주시려고 끝없는 사색과 로를 기울이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의 연설로 승화되어 이 강산에 끝없이 울려가고있다.

그 사랑의 음성이 울려 퍼진 곳마다에 인민의 새 거리, 인민사랑의 기념비들이 솟아나고 인민이 만복을 누릴 사회주의리상향은 눈앞에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

본사기자 김 철



절세위인께 인민이 삼가 드린 칭호

사상리론의 거장

력사에 류례없는 미증유의 국난을 박차고 공화국을 천하제일 강국, 천하제일라 원으로 일떠세우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공화국인민 누구나 마음속진정을 담아 삼가 드린 또 하나의 불멸의 칭호가 있다.

걸출한 사상리론가, 사상리론의 거장!

인민이 드린 이 칭호에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만고절세의 위인상이 뚜렷이 어려있다.

지금 이 지구상을 둘러보면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좌왕우왕하며 궤멸과 좌절을 겪고있는가. 그것은 국가를 밝은 앞날로 견인하는 탁월한 사상리론적구, 과학적인 지침이 없기때문이다.

사회정치생활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과학적인 해답을 주고 시대와 인민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사상리론을 제시한다는것은 보통의 지식과 일가견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생각조차 할수 없는 일이다.

력사에는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사회정치생활에서 제기되는 여러가지 문제들에 해답을 주어 사회발전에 이바지한 정치가, 위인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그들이 제시한 사

상리론들은 어느한 분야나 당대에 국한된것들이였다.

위대한 수령님도 위대한 장군님은 인민의 행복과 국가의 부흥발전을 위한 영원불멸할 사상리론들을 제시하신 사상리론의 영재, 불세출의 위인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사상리론들을 빛나게 계승하시고 발전봉부화해나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은 천리혜안의 예지로 우리 인민과 국가가 나아가길 완히 밝혀주시는 사상리론의 거장 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화국을 이끌어오신 나날은 위대한 사상리론의 변혁적외력이 뚜렷이 각인된 격동의 날과 달들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새로운 주제100년대의 첫 기층에서 자주, 사회주의의 길로 변함없이 나아가는것을 주제혁명의 백년대개의 전략으로 천명하시었고 온 사회의 김일성-김정일주의화물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를 최고강령으로, 사회주의국가건설의 총적방향, 총적목표로 내세우시였으며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의 강하발전을 위한 불멸의 지침들과 투쟁방략들을 명확히 제시하시였다.

새시대 당건설로선, 전당강화의 3대축에 관한 사상, 사회주의의 전면적발전에 관한 사상, 애국주의에 관한 사상, 혁명적투쟁건설에 관한 사상, 새시대 농촌혁명강령을 비롯한 수많은 사상리론들은 공화국을 더 큰

성공과 승리로 떠미는 전투적기치이고 강위력한 무기이다.

또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일심단결과 불멸의 군력에 새 세기 산업혁명을 더하면 그것은 곧 사회주의 강국이라는 사상, 우리가 지향하는 강국은 당의 인민적시책이 현실로 꽃피고 인민들이 실질적으로 그 혜택을 마음껏 누리려는 진정으로 인민을 위한 사회주의국가라는 사상은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사회주의강국건설에 관한 사상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신것이다.

인민관, 인민철학의 최고 정화는 인민대중제일주의이라는 사상,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사상, 자강력제일주의에 관한 사상, 전민과학기술인재화에 관한 사상,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공화국을 교육의 나라, 인제강국으로 빛내일데 대한 사상, 인민대중제일주의리론을 건축에 구현할데 대한 사상 등 과학적과 독창성, 심오성으로 일관된 경애하는 원수님의 백과전서적인 사상리론들이 있어 공화국은 복잡다단하고 예측불능한 오늘의 형세속에서도 사소한 탈선이나 담보, 철회와 좌절을 모르고 오직 승리의 한길로 힘차게 용진하고있다.

하기에 공화국인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을 천제적인 사상리론가, 사상리론의 거장, 만고절세위인으로 칭송하며 충성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따르고있는것이다.

김 금 화

인민의 행복을 꽃피우시는 나날에

공장구내에 꽃주단을 띄우고싶다

주제101(2012)년 5월 1일, 온 나라 인민들이 명절의 한때를 즐기고있던 그날에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 떠서

어느한 공장에 새로 일떠선 강성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못내 만족해하시였다.

깊은 산간오지에 일떠선 강성원의 전경은 변화한 도시 한복판에나 서있을상실은 멋쟁이건물, 흙잡을데 없이 훌륭한 문화봉사기지의 모습이었던것이다.

불과 몇달전만 해도 풀조만 서있었던 강성원은 그해 1월 땀만 강추위로 마다하지 않고 공장을 찾으시어 건

설경험이 많은 인민군부대를 파견해오도록 하시며 건설을 진척시킬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따사로운 손길에 의하여 일떠선 건물이었다.

그날 강성원의 여러

꽃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여기에 올 때마다 저절로 위대한 장군님 생각이 난다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품 들어 키워주시고 넘겨주시는 우리 로동계급인데 이 공장 로동계급을 위하여 공장구내에 꽃주단을 띄우고싶은 것이 자신의 심정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자신의 소원이 풀린 날

주제102(2013)년 12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대의 한 수산사업소를 찾으시였다.

그해 5월 비바리는 곳은 날에 그이를 사업소에 모신였던 송구함이 아직도 가슴속에 울어져있었는데 또다시 찬바람부는 때에 그들이 디에 가겠는가고 말씀하시

들의 가슴에는 안라까움이 끝없이 갈마들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올해 6개월동안에 4 000여t의 물고기를 잡았다는 수산사업소 지배인의 편지를 받아보고 너무 기뻐 이렇게 왔다고 하시면서 자신께서 이런 단위에 오지 않고 어디에 가겠는가고 말씀하시

었다.

그날 물고기절입참고와 물고기행동저장고도 돌아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오늘 온 군인들에게 물고기를 정성적으로 먹이려던 자신의 소원이 풀린 날이라고, 인민들과 군인들을 위한 마음 이 지극하면 그 어디서나 회한한 물고기풍년을 안아올 수 있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는 아까울것이 없다

주제104(2015)년 9월 어느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정성제약종합공장을 찾으시였을 때의 일이다.

마중나온 일군들의 손을 정답게 잡아주시며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수액공장이 현대적으로 확장됨으로써 지난해 시기보다 10배에 달하는 여러가지 수액약품을 생산하고있다는 보고를 받고 정말 기뻐하고, 군인들과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좋은 일을 했다고 높이

격정을 금치 못하는 일군들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최근 찾아가는 곳마다에서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고 있는것을 볼 때마다 혁명하는 보람을 가슴부듯이 느끼게 된다. 일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업어주고싶은 심정이며 그들에게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본사기자

인민대중제일주의에 기초하여 건설된 완전히 새로운 형의 강국

인민의 나라, 이것은 공화국에 대한 가장 명백한 부름이다.

자기의 국호에 《인민》이라는 두 글자를 새긴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공화국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정지리념으로 삼고 인민들의 영명과 생활뿐 아니라 미래까지도 다 맡아안고 꽃피워주는 인민의 나라로 빛을 뿌려왔다.

하기에 국제사회는 인민을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모든것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공화국에 대하여 격찬을 금치 못해하고있다.

쿠웨이트신문 《타임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야말로 전 인류가 리상으로 그

려보는 인민의 나라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는 국호와 마찬가지로 인민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우 것이 수없이 많다. 이것은 사회주의조선을 참다운 인민의 나라로 건설하려는 공화국의 투철한 의장의 반영이다. (인민을 위하여 복무함!)과 같은 구호를, (인민의 심부름군), (인민의 행복)과 같은 시대어들과 더불어 온 사회에 인민사랑의 기풍이 차 넘쳐있는것이 바로 조선식사회주의의 특징이다.》

민주공화국사상연구 전국위원회 불레텐은 《조선의 사회주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상인 주제사상을 구현하고있다. 이러한 사회주의가

완전히 새로운 형의 강국이 되며 그 어떤 대국도 지닐수 없는 거대한 힘과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인민의 나라이다.》

인민대중제일주의에 기초하여 건설된 완전히 새로운 형의 강국, 그 어떤 대국도 지닐수 없는 거대한 힘과 영원한 생명력을 가진 인민의 나라.

세인이 격찬하고있는것처럼 공화국이 민방에 빛을 뿌리는 인민의 나라로 될수 있는것은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인민의 령도자, 인민의 아버지인 김정은이였다. 인민을 제일로 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에 의하여 이 땅에는 인민의 꿈과 리상이

인민대중제일주의에 기초하여 건설된 완전히 새로운 형의 강국

활짝 꽃피어나고있다.

《오늘날 행성에서 만민의 다함없는 칭송을 받고 계시는분은 차름아닌 조선의 김정은령도자이시다. 그의 품모는 한마디로 인민에 대한 열화같은 사랑이다. 김정은령도자이시야말로 인민사랑을 천품으로 지닌분 이시다.》, 《김정은령도자는 훌륭한 품격과 자질을 갖춘 현시대의 가장 리상적인 국가지도자이시다. 인민을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이께서는 조선로동당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일관해 구현해나 가도록 이끌신다.》 등의 위인칭송의 목소리들이 행성을 진감하며 끝없이 울려 퍼지고있다.

본사기자

만년약국이 전하는 이야기

대동강구역에는 만년약국이 있다. 1년전까지만 해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온 나라가 다 아는 유명한 약국으로 되었다.

뜻밖에도 조성된 방역위기와 관련하여 전국에 최대방역약국 체계가 선포되었던 그날로부터 며칠후인 지난해 5월 15일의 깊은 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평양시주민들에 대한 약품 공급 및 판매정형을 로해하시려 이곳 약국을 찾아주시었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 뵙는 영광을 지니었던 만년약국의 판매원 김미경은 눈시울을 적시며 이렇게 말했다.

《그때 현저는 너무도 민기 어려운 현실에서 한동안 어려웠었습니다. 끝내 여기가 어떤 곳인가. 유력자들과 접촉할 수많은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곳이 아닌가. 이런 곳으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찾아오실줄 누가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뜻밖을 력사의 그날 어쩔바를 몰라하는 판매원에게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최대비상방역체계가 가동된 이후 무슨 약들이 공급되었는가, 약품들을 규정대로 보관하고 있는가, 약국들이 24시간봉 사체제로 전환하였는가, 환자들이 찾아왔을 때 상담을 하는가, 해열제와 항생제는 어떤것들이 있는가를 하나하나 세심히 물으셨다.

이날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오늘의 방역대전은 철두철미 인민을 위한 방역, 인민 자신이 주인이 되어 시행하는 인민적인 방역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일꾼들이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안녕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 나갈때 대하여 거듭 강조 하시었다.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의 그날의 간곡한 당부, 따뜻한 웃음이 영원한 메아리로 되어 울리는 약국이다.

나라의 방역상황을 시급히 안정시키기 위한 중요회의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누구를 위해 목숨까지 바쳐 싸우야 하는가를 더 깊이 자각할 때이라고, 우리 당은 자기의 중대한 책무앞

에 용감히 나설것이며 무한한 충실성과 헌신으로 조국과 인민의 안전과 안녕을 전적으로 책임질것이라고 엄숙히 피력하시던 경애하는 원수님, 조국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건강을 전적으로 책임질 송고한 사명감을 안으시고 경애하는 그이께서 인민을 위한 멸사복무의 의지로 헤쳐가신 격년의 낮과 밤들이 눈물결겨 어려와 이곳을 찾는 사람마다 선뜻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다.

최대비상방역기간 온 나라 일을 돌보시는 것처럼 바쁘

신 속에서도 인민의 생명안전을 위한 수많은 대책과 방도들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고 앓고있는 인민들 생각으로 순간도 쉬지 못하시며 가정에서 준비한 상비약품까지 어렵고 힘든 세태들에 보내 주신 인민의 어머니의 열렬한 위문헌신의 러정을 어찌 한두마디의 말로 다 전할수 있었는가.

바로 그래서이다.

건국 이래 최대의 국난이라고 할수 있는 엄혹한 시련속에서 사랑하는 인민을 구원해 주신 이 세상 가장

위대한 운명의 수호자, 인민의 자애로운 어머니의 열화같은 사랑과 정, 멸사복무의 숭고한 세계를 가슴후담게 되새겨보게 하는 사연깊은 약국이어서 끊임없이 찾는 사람들을 누구나 묻는다.

1년전 그밤에 우리 원수님 서계시던 자리가 어디인가. 그러면 판매원들은 초추치는 격정속에 대답하곤 한다.

《바로 여기가 우리 원수님께서 서계시던 자리입니다.》

본사기자 김 영 범



합께 울고웃으며 사는 화목한 때가정

친혈육보나 더 따스한 정으로

공화국에는 송고한 후대사랑, 미래 사랑으로 세 세대들의 밝은 웃음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꿈을 꽃피워 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후대교육사업에 깨끗한 랑심을 바쳐가는 교육자들이 수없이 많다. 그들속에는 신체장애가 있는 학생들을 맡아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주고있는 교육자들도 있다.

*
지난해 3월 학령 아동조사를 위하여 담당지역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박은주 형제산구역 약소학교 교원의 눈가에 는 낮에 만났던 한 소녀의 모습이 사라질줄 몰랐다.

태어났을 때부터 걸지 못하여 유치원도 못다녔다는 소녀, 학교에 가고 싶으나 혼자 일른 고개를 끄덕이던 지 언니, 그의 얼굴에 비친 그늘을 가서

주지 못하면 교육자로 일생 마음이 개운할것지 않았다.

장애자소녀를 맡아안다는 것은 쉽게 결심할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땅의 교육자라면 응답 한명의 아이 육도 조국의 미래로 더 활짝 피어나게 해야 하고 그걸에서 그 어떤 고생도 달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 그의 마음이었다.

소녀의 집을 다시 찾아가면 그는 앉은걸음으로 문가에 나온 언미에게 등을 돌려대며 말하였다.

《어서 업혀라. 오늘부터 나랑 함께 학교에 다니자.》

한 소녀의 꿈을 꽃피워줄 결심을 가다듬으며 박은주 교원은 힘차게 걸음을 내걸

었다.

언미를 등에 업고 학교로 오갈 때마다 그는 노래도 배워주고 간단한 수학문제도 물어보았다. 등교길은 언미에게 있어서 하나의 수업이였다.

하지만 그는 이에 만족하지 않았다.

(언미도 아버지원수님께서서처럼 사랑하시는 조국의 미래이다. 그가 대지를 활보할수 있게 하자.)

이때부터 그의 일과는 더 바쁘게 흘러갔다. 손에는 늘 의학적자들이 물어다녔다.

그 뜨거운 정성으로 언미의 다리에서는 점차 변화가 일어났다. 몇달전까지만 해도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던 언미가 부축을 받으며 몇 발자국을 내걸었다. 그리고 죽기계양실에도 참가하여 국가를 불렀다.

몰라보게 성장하는 소녀의 모습을 보면서 학부형들은 박은주교원의 지성이 그대로 명약이 되었다고, 친혈육의 정인들 이보다 더하겠는가고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량선일 사리원시 도림기술 고급중학교 초급반 교원도 제자들에게 사랑과 정을 아낌없이 바쳐가고있는 참된 교육자들의 한사람이다.

량선일교원이 새로 담임한 학급에 소학교시기부터 불치의 병에 걸려 제발로 걸지 못하는 남학생이 있다는것을 알게 된것은 몇해전 4월이였다.

그때부터 그 남학생인 대홍이를 위해 의사가 되고 아버지가 되어주고있는 량선일 교원이다.

대홍이가 때로 낮은 성적을 받을 때면 그는 자기의 지성과 능력의 부족처럼 느껴져 죄스러웠고 운동장에서 뛰노는 동무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가에 부러움이 비길 때면 자식을 위한 구실을 다 못하는 아버지같아 자책감에 도메기곤 하였다.

량선일교원은 병원의료인군들의 방조밑에 치료를 하기 시작했다.

휴식일, 명절날에도 높낮은 산발을 종일 뚝뚝이며 약초들을 뜯어왔다. 손에는 늘 대홍이를 위한 약초가 들려 있었다. 한해 남짓한 기간에 만도 그가 대홍이를 위해 읽은 의학서는 킬로 넘었고 산발을 누비며 캐온 약초는 마당의 창고를 가득 채웠다.

매일같이 대홍이를 등에 업고 집에서 학교로, 학교에서 병원으로 다니는 30대의 젊은 교육자의 소행을 두고 누구인들 감탄하지 않랴.

도림동사람들은 이주동성으로 말하고있다. 나에서 키워준 새세대 교육자가 정말 다르다고.

김성경 강계시 교문소학교 교원도 몇해전부터 담임한 학급의 장애자소녀를 위해 사랑과 정을 아낌없이 기울이고있다.

김성경교원에게도 어린 자식이 있다. 하지만 밝이면 장애자소녀인 기쁨이를 안아 재워주고있고 어머니의 심정으로 꿈결에도 땅을 밟으며 일어난 《아들》의 모습을 그려보곤 하였다.

유치원과정용 거치지 못한 기쁨이를 등에 업고다니며 언미를 쥐는 법부터 시작하여 우리 글, 셈세기를 하나하나 배워주며 웃음날, 마른 날 가림없이 날과 달을 이어 보면서 김성경교원이 바란것은 무엇이었던가.

지난해 2월 광명성절을 맞으며 조선소년단에 입단한 기쁨이에게 그는 이렇게 말했다.

《기쁨아, 이 베타이는 함 일아동단의 붉은베타이를 물려받은것이란다. 붉은베타이와 더불어 나라의 훌륭한 역군이 되거라. 그러면 난 더 바랄것이 없단다.》

기쁨이는 오늘도 김성경교원의 등에 업혀 등교하고있다. 얼마나 훌륭한 교육자들인가.

이런 교육자들이 서있는 교단은 서로 달라도 학부형들과 학생들의 진정에 넘친 목소리는 하나와 같다.

《우리 선생님을 널리 자랑 해주십시오.》

여기에는 학생들을 위해 친혈육의 정을 아낌없이 기울이고있는 교육자들이 더없이 아름다운이 어려있는것이 아니다.

그 목소리에는 남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여기고 서로 부축해주고 의지하는것이 국공으로 되고있는 고마운 사회주의제도에 안겨사는 크나큰 긍지가 비껴있다.

본사기자

어제와 오늘이 다르게 변혁의 새 력사를 창조해가는 우리 공화국에서는 새로운 시대어들이 많이 생겨나고있다.

그 모든 시대어들은 우리 인민의 오늘의 행복상이 담기고 더 좋은 미래를 향해가는 지향의 의지가 비껴 있다.

나는 얼마전 참관자로 련포온실농장을 돌아보면서 우리 공화국의 인민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밝은 미래를 심장으로 체합하고 느끼게 되었다.

저절로 감탄이 터져나왔다. 정말 장관이었다.

우리 나라 농촌진흥의 본보기, 농촌문명의 배일이 여기에 펼쳐져있다.

나의 옆에서도 여러문명의 사람들이 연방 감탄을 하며 말을 주고 받고있었다.

《아! 우리 철령아래 사과 바다는 붉은 바다. 여기 련포는 은백색의 바다야.》

《글쎄, 우리 중평은실농장도 모두들 와보고 온실바다라고 감탄을 하지만 련포는 더 큰 온실바다야.》

사람들이 떠들썩한다.

중평치녀가 조용히 말했다.

《정말 우리 나라는 바다가 많기도 하구나. 사랑의 바다가...》

사랑의 바다가 많은 나라!

극악한 전제독재체제와 끈질긴 경제봉쇄책동이 계속되었고 약성비루스는 나라와 인민의 운명을 시시각각 위협했다.

그러나 우리는 약성비루스와의 싸움에서 이겼을뿐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련포만에 이렇듯 력사에 길이 남을 인민의 행복을 위한 거창한 창조물을 일떠세웠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진할 줄 모르는 인민사랑이 원천이 되어 이 땅에 펼쳐진 사랑의 바다들은 그이의 뜨거운 사랑을 전하며 인민의 행복을 더 아름답게 꽃피워갈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마음속 흥분을 누를길 없어 시를 써나갔다.

... ..

인민 위한 마음 얼마나 극진하셨으면 몸소 착공의 첫삽 뜨시었으랴

동해바다는 수수천만년 지각의 변화 속에 생겼지만 내 조국의 자랑 련포의 온실바다는 원수님 첫삽에 실려 그날에 벌써 태어났어라

《바다》가 많은 나라

강원도에서 온 처녀인 듯싶는데 다른 청년이 그 에 뒤질세라 말을 받는 것이었다.

《지난해에 우리 황남에 펼쳐졌던 농기계바다도 정말 장관이었어.》

보아하니 그들은 한곳에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다.

아니나다를까 자기네 교장의 사과바다자랑을 하던 처녀가 다른 처녀에게 말을 건넨다.

《중평, 너도 한번 말해보려. 중평은실자랑을 그렇게 하더니 오늘도 입이 열여 붙었어?》

생각도 깊어진다.

철령아래 사과바다, 중평의 온실바다, 황남의 농기계 바다, 오늘은 또 여기에 련포의 온실바다...

아마 다른 도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은 자기 고장에 생긴 또다른 《바다》 자랑을 하리라.

바다란 크고 넓음을 뜻한다. 바다와도 같은 이 세계 굴지의 대규모온실농장이 어떻게 이 땅에 펼쳐질수 있었는가. 그것도 단 230여일 동안에.

《230여일도 평범한 나날이 아니었다. 적대세력들의

세계는 놀랐다. 적대세력들은 전율했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약성비루스도 사람들이 죽어가고 흉수피해로 도시와 산업시설이 물에 잠겨 아우성칠 때 우리 공화국에서는 모든 고난과 시련을 이겨내며 회한한 거리들을 일떠세우며 련포의 온실바다를 펼쳤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속에 기적과 변혁이 련이어 일어나는 내 나라에는 앞으로 또 얼마나 많은 인민사랑의 바다들과 시대어들이 생겨날 것인가.

인민을 위하시는 송고한 헌신이 이 땅에 바쳐가시는 뜨거운 헌신이 바라볼수록 력력히 어려 있는 화폭이여 원수님은 오늘도 첫삽을 번연할 이 땅의 천만민을 안아올리신다

김 영 범



1990년대초에 세계보건기구의 주관하에 70여개 나라의 보건전문가들이 공화국을 방문한적이 있었다.

목적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보건제도도 알려진 의사담당구역제의 형성과 방법 등을 따라 배워 구현하기 위 해서였다.

그러나 의사담당구역제는 배워간다고 해서 쉽게 자기 나라에 도입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그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그 어느 나라도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하지 못하고있는 현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조선이 아니고서는 중앙으로부터 각 도, 시, 군, 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지역에 팔고류 의료기관들과 의사를 배치하는 등 여러가지 조건을 원만히 갖추어야만 하는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할수 없기때문이다.

의사담당구역제는 의사가 일정한 지역의 가정세대들을 담당하여 돌보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공화국의 인민적인 의료봉

사제도로서 예방을 기본으로 하는 사회주의의학의 본성적요구에 맞는 주민건강관리제도이다.

공화국에서 의사담당구역제는 이미 해방직후인 1940년대말에 시작되어 1961년부터는 이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사업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공화국의 사회주의보건제도의 인민적성을 힘있게 파시해온 의사담당구역제는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손길아래 그 우월성이 더욱 뚜렷이 파시되고있다.

《자본주의 나라에도 개인 건강관리계약제 라는것이 있다. 그러나 그것은 의사들이 여러 세대의 가정과 계약을 체결하고 건강을 돌봐주면서 병원에 받는 것보다 몇배나 더 많은 돈을 받는 돈벌이계약제이다. 자본주의 나라들에서는 의사와 몇몇동안의 상담을 하고도 해도 돈이 요 구된다. 그러므로 하여 일반사람들은 왕진을 받을 엄두도 내지 못하고있다. 의사담당구역제의 실시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 결여된 나라들에서는 실사 마대 한 재부를 가지고있다고 해도 실현할수 없는것이다.》

참으로 공화국에서 실시되고있는 의사담당구역제는 단순히 보건제도의 우월성이기 전에 자본주의가 흉내낼수도, 지어낼수도 없는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이며 인민대중제일주의정치의 참모습이다.

사랑은 황금으로 살수도, 계산할수도 없다.

돈만 있으면 그 무엇이든 다 할수 있다고 보는 자본주의가 그 역대의 재부를 다 쏟아도 감히 엄두도, 흉내도 낼수 없는 이런 인민사랑의 시책들을 실시하는 공화국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사회제도이며 공화국인민들이야말로 제일 행복한 인민이다.

본사기자 김 강 철

1990년대초에 세계보건기구의 주관하에 70여개 나라의 보건전문가들이 공화국을 방문한적이 있었다.

목적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보건제도도 알려진 의사담당구역제의 형성과 방법 등을 따라 배워 구현하기 위 해서였다.

그러나 의사담당구역제는 배워간다고 해서 쉽게 자기 나라에 도입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그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그 어느 나라도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하지 못하고있는 현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조선이 아니고서는 중앙으로부터 각 도, 시, 군, 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지역에 팔고류 의료기관들과 의사를 배치하는 등 여러가지 조건을 원만히 갖추어야만 하는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할수 없기때문이다.

의사담당구역제는 의사가 일정한 지역의 가정세대들을 담당하여 돌보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공화국의 인민적인 의료봉

1990년대초에 세계보건기구의 주관하에 70여개 나라의 보건전문가들이 공화국을 방문한적이 있었다.

목적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보건제도도 알려진 의사담당구역제의 형성과 방법 등을 따라 배워 구현하기 위 해서였다.

그러나 의사담당구역제는 배워간다고 해서 쉽게 자기 나라에 도입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그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그 어느 나라도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하지 못하고있는 현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조선이 아니고서는 중앙으로부터 각 도, 시, 군, 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지역에 팔고류 의료기관들과 의사를 배치하는 등 여러가지 조건을 원만히 갖추어야만 하는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할수 없기때문이다.

의사담당구역제는 의사가 일정한 지역의 가정세대들을 담당하여 돌보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공화국의 인민적인 의료봉

1990년대초에 세계보건기구의 주관하에 70여개 나라의 보건전문가들이 공화국을 방문한적이 있었다.

목적은 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보건제도도 알려진 의사담당구역제의 형성과 방법 등을 따라 배워 구현하기 위 해서였다.

그러나 의사담당구역제는 배워간다고 해서 쉽게 자기 나라에 도입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그때로부터 수십년세월이 흘렀지만 아직까지 그 어느 나라도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하지 못하고있는 현실이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그것은 돈이 아니라 인간의 생명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조선이 아니고서는 중앙으로부터 각 도, 시, 군, 리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지역에 팔고류 의료기관들과 의사를 배치하는 등 여러가지 조건을 원만히 갖추어야만 하는 의사담당구역제를 실시할수 없기때문이다.

의사담당구역제는 의사가 일정한 지역의 가정세대들을 담당하여 돌보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공화국의 인민적인 의료봉

비인간적인 행위가 꼬리를 물고일어나는 썩어빠진 사회

남조선에서 비인간적인 행위들이 꼬리를 물고일어나 사람들을 경악케 하고있다.

남조선의 보건부분의 실태가 그것을 잘 말해주고있다.

지난 3월 남조선 대구의 한 건물에서 17살 난 처녀가 4층높이의 건물에서 떨어져 발목과 머리에 큰 부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

구급차가 생명이 위급한 처녀를 싣고 어느한 종합병원으로 급히 달려갔지만 병원에서는 전문 의사가 없다는 구실을 대면서 환자에 대한 구급치료를 매물치게 거절해나갔다.

하는수없이 또 다른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그곳에서도 환자가 많아 입원치료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돌아서지 않으면 안되었다.

이렇게 구급차로 이 병원, 저 병원으로 2시간나마 헤메던 끝에 처녀는 구급차안에서 숨을 거두지 않으면 안되었다.

생사기묘에 처한 처녀를 싣고 여러 병원을 떠돌던 한 사람은 《대구시대의 거의 모든 병원이 전화했었다.》고 당시의 상황을 전했다.

사회제도를 잘못 만나 치료 한번 받아보지 못하고 불행하게 숨을 거둔 사람이 어찌 그 하나뿐이라.

올해 1월 서울에서 가슴아픔을 호소하는 68살 난 구급환자를 1시간이 훨씬 넘도록 병원에서 치료를 해주지 않는 비인간적인 행위가 발생하여 물의를 일으켰다.

알려지지 의하면 지난해에만도 남조선의 병원에서 부당한 구

실을 대면서 분초를 다투는 치료를 거부한것으로 하여 환자들이 여러 병원을 떠돌아다니지 않으면 안된 실례는 무려 6 840건에 달한다고 한다.

그뿐이 아니다.

남조선의 병원들에서는 의사의 말을 쓴자들이 인간의 귀중한 생명을 놓고 상상 못할 범죄행위를 저질러 사회적저우러와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그 단적인 실례가 남조선의 보건부분에서 성행하고있는 《유령수술》에 의한 피해이다.

남조선의 병원들에서는 유명한 의사를 내세워 요란하게 광고하고 환자들을 받아들이고있는 실지 수술은 다른 전공부문의 의사나 애당초 자격도 갖추지 못한 의사들이 집도하여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있다.

지어 어떤 병원들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것으로 하여 《살인공장》이라는 오명을 쓰고있지만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있다.

얼마전 서울의 한 병원에서 2살짜리 어린이의 복강경수술을 하다가 어린이의 배안에서 수술도구를 부러뜨리는 사고를 발생시킨적이 있었다.

어린 생명을 위협하는 엄청난 의료사고를 내고도 병원측에서는 가족들에게 사과를 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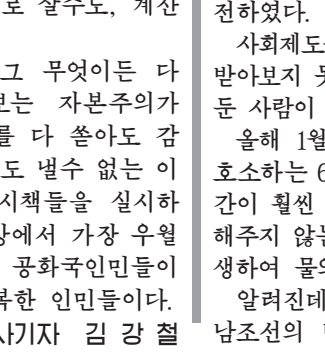
대신 오히려 오만하게 놀아대며 당사자의 격분을 자아냈다.

의사의 말을 쓴 그들에게는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어린 생명이 한푼의 가치도 없는, 한갓 저들의 돈주머니를 채워주는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던것이다.

자기의 리익과 향락을 위해서라면 실사 제 살벌이든 서슴없이 죽이는 남조선사회에서 사랑과 정이 아니라 학대와 고통속에 피기도 전에 얼마나 많은 꽃망울들이 그 얼마나 지니고 있다.

구수소의 특권층이 범죄로써 한답시고 거액의 돈을 탕진하고있을 때 근로대중은 초보적인 의료봉사를 받지 못하고 병이 나면 죽는 것을 속명으로 여겨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람 못할 남조선사회이다.

본사기자



수술실 환자가 의사를 못보게 하라

존엄높은 어머니조국이 있어 총련은 강하다

오는 5월 25일은 공화국의 자랑스러운 해외교포조직인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가 결성된 때로부터 68돌이 되는 날이다.

뜻깊은 이날에 즈음하여 공화국인민들은 절세위인들의 열화같은 민음과 숭고한 동포애, 재일동포들의 고결한 애국정신으로 수놓아진 총련의 자랑스러운 로정을 감회깊이 돌이켜보며 위대한 태양의 빛바람과 변함없는 신념과 의지를 안고 조국을 옹호하고 조직을 사수하며 애국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뜨거운 동포애적인사를 보내고 있다.

예로부터 해외동포들은 민족이라는 대하에서 뛰어나온 물방울에 비유되었고 그들의 역사는 레 없이 수난의 력사로 불리워왔다.

다시 되보면 우리 민족의 불행에 찬 해외류방의 력사는 일제의 조선침략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불우한 행렬 가운데서 최악의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다름아닌 재일조선동포들이었다.

1910년 《한일합병조약》이 날조되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사는 조선사람들의 수는 수백명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1945년 일제패망당시에는 그 수가 무려 240만명에 달하였다. 그 절대다수가 일제의 총칼에 떠밀리워 강제로 바다 건너 일본에 끌려간 사람들이었다.

말 그대로 얼음판에 떨어진 씨앗과도 같이 차디찬 지역의 대지에 뿌려졌던 재일동포들이야말로 우리 민족사의 가장 비참한 수난자들이었다.

이런 그들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아주시고 영광스러운 조국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창건해주심으로 비로소 《나는 조선사람이다》고 뱃뱃이 말할 수 있게 되었으며 존엄높은 공화국의 해외공민이라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신심과 락관에 넘쳐 살며 일하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비범한 예지와 정력적인 령도로 재일조선인운동을 현명하게 이끌고오며 위대한 태양의 빛바람과 변함없는 신념과 의지를 안고 조국을 옹호하고 조직을 사수하며 애국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뜨거운 동포애적인사를 보내고 있다.

바로 이러한 때에 해외교포 운동은 비록 이국땅에서 진행되지만 어디까지나 주체적립장에서 자기 나라 혁명에 참가해 이바지하는 민족적 애국운동으로 되어야 한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로선전환방침이 제시되게 되었다.

이것은 동포들의 머리에 오라 드리웠던 절망의 짙은 구름장을 걷고 비쳐든 은혜로운 소생의 빛바람이었다.

1955년 5월 25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가 결성됨으로써 주체적립 해외교포운동의 시원이 열리게 되었으며 이때로부터 재일조선인운동은 주체의 궤도를 힘차게 달리게 되었다. 진정한 어머니조국과 운명의 피줄을 맺은 이 력사의 날이 있어 애국애족의 선각자, 애국충정의 모범,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로 자랑높은 총련의 어제와 오늘, 래일이 즐거우게 흐르게 되었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는 드디어 해살도 한 겹 눈부시며 신록이 출추는 5월 25일 름름히 새 출발을 했다. ...이것은 오로지



영명한 수령 김일성주석님을 모신 우리들만이 능히 달성할 수 있는 자랑이며 또 하나의 승리이다. ...우리는 이날을 얼마나 고대하고 주목했는가! 또한 이 력사적인 전환을 저어하려고 내외의 적들의 음모와 도발책동은 얼마나 후심했는가! 재일 60만은 그를 물리치고 기어이 승리하고야 만 것이다》

당시 《해방신문》에 대해 특별필되었던 이 기사에는 공화국의 기치아래 보람찬 애국투쟁의 길에 나서게 된 재일동포들의 격동과 환희가 그대로 담겨있었다.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 밑에 존엄높은 자주의 나라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위용될치는 공화국은 재일동포들이 바라는 이역땅에서도 추호의 흔들림 없이 애국위업의 한걸음도 굽지 않을 수 있게 한 역사의 지시대였다. 일제기 총련의 강화발전

과 재일동포들의 운명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김정일 장군님께서서는 어머니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이어 탁월한 사상리론적예지로 재일조선인운동이 나아가 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었으며 재일동포들이 애국애족의 한걸음도 굽지 않는 삶을 빛내도록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었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극진히 아끼고 사랑하시는 김정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변화된 정세와 세대가 교체되는 환경에 맞게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로 올려올리세 대한 위대한 장군님의 간곡한 유혹을 철저히 관철할 수 있는 과업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었다.

재일동포들은 두터운 정을 안고 사는 혈육이라고, 주체의 애국유신인 총련을 귀중히 여기고 백방으로 보호할 것이며 총련일군들과 재일

동포들의 존엄높은 삶과 밝은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할것이라고 하신 김정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없는 동포애, 민족애가 그대로 어려있다.

절세위인들의 은혜로운 손길이 있어 총련은 사회주의조국과 운명을 같이하는 공화국의 참다운 해외공민단체로 강화발전되어왔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총련을 그 어떤 친지가족에서도 그 어떤 애국적으로 철석같이 다지였으며 절대적력들의 온갖 비난과 공격으로부터 공화국을 견결히 옹호하였다.

동해의 파도너머 들려오는 조국의 자랑찬 소식, 절세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주체의 한걸음도 굽지 않는 존엄을 떨쳐가는 어머니조국의 드높은 숨결은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신념과 투쟁의 활력소였다. 총련은 동포들의 권리와 리

의 철저한 대변자, 견결한 옹호자로서 그들의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부리중진을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왔다. 특히 민족교육체계를 정연하게 세워놓고 애국위업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수많은 인재들을 훌륭히 키워냈으며 주체성과 민족성이 흘러넘치는 동포사회를 꾸려놓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자랑스럽게 꽃피워왔다.

지난날 이역땅에서 온갖 수모를 받으며 무권리와 생활고에 시달려오던 재일동포들이 오늘 자주독립조국의 해외공민으로서 민족적근지와 자부심을 안고 땀땀이 살고있는 것은 총련이 그들의 운명을 책임지고 그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론 투쟁하여온 결과이다.

세계에는 수많은 해외교포들이 살고있고 저마다 자기 조국을 두고 활동하고있지만 총련과 같이 자기 수령, 자기 조국, 자기 민족에게 충실한 그런 참다운 해외교포 조직은 없단다.

오늘도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조국인민들과 교락을 함께 나누며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불타는 애국지성을 바치고있다.

조직사상적으로 굳게 단결되고 광범한 동포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았으며 애국애족의 계주봉을 변함없이 이어나가는 여기에 총련의 자랑스러운 참모습이 있다.

자주로 존엄높고 강대한 어머니조국이 있어 총련은 강하고 재일동포들의 삶도 빛나고있다.

대를 이어 절세위인들을 모시고 공화국을 펼칠 휘날리며 역세게 나아가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다. 본사기자 전 영민

뜨거운 정이 넘치는 동포사회

동포들이 사는 방방곡곡에서 화목과 단합, 애국애족의 열기가 끊임없이 고조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하신 김정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간곡한 말씀을 명심하고 총련의 각급 조직들이 동포사회에 뜨거운 열정의 정이 넘치게 하기 위한 사업을 잘해 나가고있다.

재능의 싹을 자래워주며

최근년간 재일본조선문화예술가동맹(문예동) 히로시마지부에서는 학생시절 예술적기량을 쌓은 사람들을 찾아내어 그들의 재능을 더욱 꽃피워주고 동포들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민족문화마당을 더 많이 마련하는 사업을 잘해왔다. 그 결과 동맹멤버가 확대되고 문예소조들의 운영이 활성화되게 되었다.

중요한 성과는 학생들을 위한 무용연구소를 새로 내은 것이다. 학생들이 무척 좋아한다. 그들은 과외시간을 리용하여 아름답고 우아한 우리 민족무용을 마음껏 배우고있다.

얼마전 지부가 주최한 무용연구소의 첫 발표모임이 총련 히로시마조선초중고급학교에서 진행되었다. 총련 히로시마조선가무단 성원들이 찬조출연하였다. 《장교와 방울》, 《우리 장단이 좋아》를 비롯한 다채로운 무용작품들이 무대에 올랐다.

공연마지막에는 연구소에서 배우는 전체 학생들이 출연하는 군무 《부림없어라》가 펼쳐졌다. 출연자들은 자기들의 예술적재능을 남김없이 과시하였다. 절찬의 박수소리가 그칠 줄 몰랐다.

마음에 한걸 구경할도 없이 무력무력 자라며 재능을 꽃피워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대견하게 바라보는 지부성원들의 얼굴마다에는 기쁨의 미소가 어려있었다.

화목한 동포사회

얼마전 총련 아미가사끼조선초중급학교 운동장에서서는 요고현 니시노미야지역 동포들의 련환모임이 진행되었다.

니시노미야지역 청상회가 발기하고 총련지부와 녀성동맹, 조정조직이 적극 협조하여 마련된 행사였다. 사람이 오가고 정이 통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이니 그 기쁨은 실로 한량없었다.

각계각층 동포들은 다채로운 유희오락경기를 진행하고 흥겨운 노래춤무대도 펼치면서 즐거운 한때를 보내었다.

동포사회에 흘러넘치는 아름답고 고상한 인문도덕과 후더운 정을 보여주는 광경이었다.

우리 민족의 고유한 미풍양속을 살리며 동포들사이의 화목과 단합을 강화하는 사업에 힘을 넣은 결과 이 지역 동포사회에는 이처럼 아름답고 건전한 민족문화정서가 차넘치게 되었다. 본사기자



광주항쟁렬사들의 념원은 실현되지 않았다

남조선에서 광주인민봉기가 있는 때로부터 43년이 흘렀다.

광주인민봉기는 자주와 민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항쟁이었다.

1979년 《유신》독재자가 비참한 종말을 고향 이후 남조선인민들은 《비상계엄령》의 해제 등 민주주의실현을 강력히 요구해나섰다.

그러나 외세의 막후조종 밑에 《12.12수군쿠데타》를 일으킨 전두환군사파쇼당은 남조선인민들의 높아가는 민주화열망을 총칼로 짓누르며 사회전반에 무시무시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였다.

1980년 5월 17일 전두환군사파쇼당은 모든 집회와 일체 정치활동의 금지, 모든 대학들의 폐쇄, 출판보도물에 대한 엄격한 사전검열제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엄조-10》호를 공포하였다. 그리고 5월 17일 밤과 18일 새벽 수많은 진보적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주인사들

을 체포하였다. 5.17파쇼폭거는 남조선에서 새로운 독재통치의 서막을 알리는 일대 파쇼광란이었다.

남조선인민들의 민주화지향에 5.17파쇼폭거로 도전해나선 군사장관들의 망동애국본능의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은 1980년 5월 18일 대중적인 봉기를 일으켰다.

봉기자들은 《비상계엄령을 해제하라》, 《유신체제를 철폐하라》, 《민주정부수립》, 《양키는 물러가라》 등의 구호를 웨치며 증무장한 《계엄군》과 맞서 과감한 투쟁을 벌였다.

파쇼당당이 공경부대를 비롯한 정규군부력을 대대적으로 투입하자 무기교를 습격하고 각종 무기를 빼앗아 무장한 봉기자들은 도청, 경찰국을 비롯한 지방통치기관들과 주요공공기관들을 점거하면서 봉기를 확대해나갔다.

도시가 군사파쇼당의 폭압무력에 의해 겹겹이 포위되고 무차별적인 공세가 끊

임없이 계속되는 속에서도 봉기자들은 굴함없이 싸워 10일동안이나 도시를 사수하였다.

당시 광주인민봉기를 진압하기 위하여 군사파쇼당당이 감행한 치명적인 살인만행은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잔인무도한 것이었다.

살인귀들은 곤봉으로 봉기자들의 머리를 마구 내리치고 임신부의 배를 갈라 태아를 끄집어내어 내동댕이쳤으며 쓰러진 시민들을 짐짝 끝머리 거리바닥으로 질질 끌고 갔다. 지어 평화적군중을 향해 무차별적인 사격을 가하였던 직승기에서 기관총사격을 가하는 천인공노할 만행까지 저질렀다.

이로 하여 인민의 함성드높은 광주를 삼시에 인민들이 흘리는 피로 물들게 되었다.

당시 세계의 언론들은 광주를 《피의 목욕탕》, 《망명민이 배회하는 도시》로 묘사하며 군사파쇼당의 야수적인 살인행위를 폭로규탄하였다.

식민지파쇼통치를 밑뿌리째 뒤흔들여놓은 광주인민봉기는 불의에 굴하지 않고 결렬히 맞서싸우는 남조선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의 굳센 기상을 시위하고 남조선인민운동을 더욱 즐거우게 떠밀어 주는 기록제로 되었다.

광주인민봉기는 그 후 1987년 6월민주항쟁으로 이어지고 새 세기에 들어와 두너중학생을 장갑차로 깔아죽인 미군의 만행에 본격하여

타오른 대중적인 반미초불시위로 발전하였으며 수년전에는 남조선 전지역적인 대중적초불항쟁으로 번져져 박근혜독재 《정권》의 몰락을 가져왔다.

하지만 남조선에서는 아직도 자주적이고 민주주의적인 새 정치, 새 생활에 대한 광주봉기자들의 소원과 남조선 각계층의 념원이 실현되지 못하고있으며 사대매국과 파쇼독재, 반공화국대결의 수치스러운 력사가 계속되고있다.

미국은 남조선에 대한 정치적지배와 경제적억속등을 더욱더 교활하고 악랄한 방법으로 감행하면서 남조선을 반공화국압살과 세계 패아망실현을 위한 핵전초기지, 핵약고로 더욱 전락시키고있다.

윤석열역적패당은 미국의 강권과 전횡, 대조선대대시정책에 적극 추종하여 외세의 각종 부친전쟁연습들을 매일 같이 벌려놓으면서 민족의 머리에 핵전쟁의 검은구름을 몰아오고있다.

얼마전에도 역적패당은 미국을 행각하여 공화국을 겨는 《화강역적력》의 실행력체고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위싱턴선언》과 남조선미국 일본 《3자협력확대》 등을 노린 《공동성명》이라는것을 조작발표하여 조선반도의 핵전쟁위험을 최대로 증대시키고 남조선을 미국의 영원한 속지로 삼겨버렸다.

이러한 친미대국배행위도 성차지 않아 윤석열역도 는 과거문제에 대한 립골

만한 사죄도, 반성도 하지 않는 천년속죄과 입을 맞추는 천인공노할 반역행위도 서슴지 않고있다.

일본에 대한 친일골종행각을 단행하여 남조선인민들의 존엄과 이익을 팔아먹다 못해 왜나라수상을 남조선에 끌어들이러오는 과거죄악을 덮어주고 공화국을 반대하는 군사적결강화화를 모의하면서 제침의 문을 더욱 활짝 열어서는 엄청난 대국배행위 한 역적패당의 죄악은 지금 온 겨레의 분노를 자아내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집권 1년간에 남조선을 습박하는 검찰파쇼압축지대로 만들어놓고 친재벌체제과 반로동, 반인민적약정으로 근로대중의 삶을 짓밟고있으며 초보적인 생존권보장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투쟁을 《불법》, 《폭력》으로 몰아 가져왔던 탄압하는 등 파쇼살인기질을 날 날이 드러내고있다.

현실은 윤석열역적패당이아 말로 자유와 민주를 요구하는 광주시민들을 《독도》로 몰아 야수적으로 탄압할살한 전두환군사파쇼당도 무색케 할 친미친일역적들이고 반공화국대결광들이며 국약무도한 파쇼광신자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남조선에서 광주인민봉기는 결코 지나간 력사속의 항쟁이 아니다.

그 자랑스러운 투쟁은 오늘도 남조선인민들의 반외세자주화와 반파쇼투쟁을 힘있게 고무추동해주고있다. 본사기자 박철 남

《5월 정신 잊지 말자》

얼마전 남조선의 《제43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와 《5월 정신 지키기 범시민대책위원회》의 주최로 광주에서 《5.18민중항쟁정신계승 범국민대회》가 진행되었다.

대회에는 로동자, 청년, 일반시민을 비롯한 각계층 2000여명이 참가하였다. 대회에서는 먼저 참가자들의 발언이 있었다.

5.18광주인민봉기당시 광주시민과 시민에게 주먹밥을 만들어주었던 한 시민은 《당시 죽어나가는 시민들을 위해 할수 있는것이냐고 는 주먹밥을 싸서 전하는것뿐이었다. 겁도 나고 무서웠지만 그래도 해야겠다는 생각이였다》, 《그러나 주먹

밥을 싸서 나누던 당시보다 오늘날이 더욱 각박한 세상 이 되고말았다》라고 하였다. 《5.18정신은 빈부격차와 랑국화, 불평등이 없는 세상을 만드는 기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였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본부 상임대표는 《아직도 5.18을 외국하는 선택이 있다. 윤석열(정권)은 광주를 분열시켜 민주화요구를 짓밟고 있다》고 하면서 《외국과

분렬을 뚫고 5.18에서 통일로 이어지는 그림을 완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님을 위한 행진곡》과 《광주출정가》 등의 노래를 부르며 5.18광주인민봉기의 정신을 계승해나갈 결의들을 다지었다.

본사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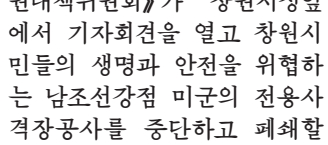
《미군사격장공사 당장 중단하고 폐쇄하라》

얼마전 남조선의 《민주로총》 경남분부와 《마장진환경운동원련합》, 《정의당》을 비롯한 18개 시민단체, 정당들이 광라된 《주(한)미군전용사격장건설중단 및 폐쇄창린대책위원회》가 창린시청안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창린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남조선강점 미군의 전용사격장공사를 중단하고 폐쇄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그들은 기자회견에서 《미군전용사격장중단에 대우를 아바트들과 상결, 버스정류소 등이 있다》, 《사격장건설로 주민들이 언제 총란이 날아올지 모를 위험에 처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그림에도 불구하고 《건설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사격장의 면적과 사격훈련의 빈도도 알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금쯤 저격무기사격장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다른 용도의 군사시설로 바뀌어도 (SOFA협정)을 내세우면 아무것도 알수 없다》,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을 받는데도 사업내용을 알수 없다는 시장국의 처사에 참담함을 금할수 없다》고 하면서 《(한미동맹)이라는 명목으로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있는 당국을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남조선강점 미군이 《사격장공사를 중단하고 폐쇄하라》고 당국에 적극적인 대책을 취할것을 요구하였다. 본사기자



폭넓은 기술교류, 활발히 진행된 경험교환

— 제36차 전국과학기술축전 진행 —

공화국에서 과학기술교류와 협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있는 속에 제36차 전국과학기술축전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었다.

《과학기술총시, 과학기술선행》을 주제로 하여 진행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고상한 감정을 부드럽게 나타내기 위한 언어수단과 수법들을 많이 썼었다.

그중의 하나가 바로 에두름말이다.

에두름말이란 어떤 사물현상을 표현할 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고 다른 이름이나 표현으로 에둘러 나타내는 말을 말한다.

예를 들어 《출생하다》를 《고교성을 터치다》로 표현한다.

아름다운 우리 말

에두름말과 언어례절

에두름말을 언어례절에 옮겨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상한 정신적품모와 구체적인 감정에 맞는 에두름말을 찾아야 한다.

예를 들어 나이가 들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경우에도 《늙었구만요》라는 직선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것을 에

수, 통보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들이 도입되어 참가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 일군의 말에 의하면 지난 시기에는 대체로 큰 공장, 기업소나 과학기술사업이 잘되고 축전에 관심을 가지는 단위들이 참가하였지만 올해에는 성, 중앙기관들과 큰 공장, 기업소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안 있는 모든 단위들이 지역별과학기술축전에 참가함으로써 그 규모와 대상이 더욱

르는데 좋다.

또한 에두름말에서 나타나는 뜻짓갈의 섬세한 차이를 잘 알고 효과있게 써야 한다.

예를 들어 《자다》에 대한 에두름말에는 《잠자다》, 《자리에 틀다》, 《잠이 들었다》, 《눈을 붙이다》 등이 있다.

또한 말법을 바꾸는 방법도 중요하다.

예컨대 옷사람에게는 《식사합시다》라는 추경의 말법

하는 연구자로 등 여러가지 가치있는 제안들이 학술토론회, 연구토론회를 통하여 적극적으로 논의되었다.

또한 국내실정과 세계과학기술발전추세에 맞게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목적을 두고 폭넓은 기술교류와 경험교환도 진행되어 참가자들의 시야를 넓혀주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변혁적성과파도를 창조하려는 심신을 북돋아주는 경정마당으로 된 이번 축전은 나라의 과학기술력을 중대시하여 사회주의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힘있게 견인해나가는 데서 의의있는 계기로 되었다.

보다도 《식사시간이 되었습니다.》라는 알림법이나 《식사하시지 않았습니까?》라는 물음법으로 표현하는것이 례절이다.

아래사람인 경우에도 《레일 출장을 떠나시오.》라고 시킴의 말법으로 말하는것보다 《레일 출장을 가야 하는데 어떻소?》라는 물음의 말법으로 말하는것이 좋다.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족의 화초장식문화

아름답고 고상한것을 좋아하는 우리 민족은 일찍부터 화초장식문화를 창조하고 발전시켜왔다.

아득히 먼 고조선시기부터 신에게 제를 지내던 제단을 꽃과 풀로 장식하던 화초장식은 세나라시기에 고구려를 중심으로 널리 발전하였다.

이 시기에 화초장식은 완결성과 안정감을 추구하면서 또 비교적 품만하고 부드러운 형태를 갖추었다.

고려시기에도 고구려의 영향을 받아 화초장식은 다양한 형식으로 발전하였다.

이때부터 화초장식은 실용적인 목적과 미적감상의 대상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화초장식문화발전에서 기본은 왕궁에서 화초장식이 장려되면서 그 리용

범위와 표현명역이 보다 넓어지게 되었다.

청자기를 비롯한 고려자기들의 출현도 당시의 화초장식문화발전이 크게 이바지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들어와 화초장식은 새로운 면모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화려함보다는 품위와 격을 중시한 이 시기 화초장식에서는 정갈하고 단아하며 깨끗한 분위기조성을 위해 실용적인 측면을 추구한것이 특징적이다.

이와 함께 평민들의 생활정서를 반영한 화초장식이 널리 리용되었는데 특히 겸은 꽃병에 꽂아놓는 형식으로 만든 병화를 흔히 찾아볼수 있다.

강희안의 《양화소록》은 그가 문명부 지사라는 벼슬 자리에 있을 때 화초에 관심을 가지고 직접 가꾸는 과정에 이룩한 경험과 원예부문 서적을 참고하여 쓴 책으로서 화분꽃가꾸기법, 꽃을 아름답게 피우는 방법, 화초를 접하는 방법 등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조선봉건왕조말기에는 실학자들에 의하여 화초장식이 과학적인 연구대상으로 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우리 민족의 화초장식문화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화초장식을 형상한 고려시기의 벽화



조선봉건왕조시기 화초장식을 형상한 그림



조선봉건왕조시기 화초장식을 형상한 그림

금강모치는 금강군 금강읍으로부터 온정평까지의 금강천상류에서 살고 있는 잉어과에 속하는 작은 민물고기이다.

몸길이는 보통 7~8cm이다.

생김새는 일반버들치와 비슷하며 특히 등지느러미의 앞말등에 검은 점이 있는것은 등점버들치와 비슷하다.

몸통은 실복모양으로 길쭉하고 옆으로 약간 납작하다.

눈은 크고 주둥이는 약간 뾰족하며 꼬리자루

생활습성은 다른 버들치들과 비슷하며 주로 물이 맑고 찬 강상류지대에서 무리를 지어산다.

알출이는 5월부터 시작해서 6~7월까지 하는데 강기슭의 모래, 자갈판에 한마리가 약 500~600개의 알을 낳는다.

주로 물살이동물들과 갑각류, 식물성조류들을 먹고 사는데 2~3년이면 성숙된다.

금강모치는 조선의 특산종으로서 높은 산지대의 하천에 국한되어 살고 있으므로 학술적의의가 있어 천연기념물로 보호 관리되고있다.



본사기자

신재효는 조선봉건왕조말기의 작가였다.

가난한 아전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는 자기 집에 배우들을 모아놓고 민간예술작품을 창작하기도 하고 후비로도 육성하였다.

그의 이름이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된것은 당대의 한 다하는 명가수들이 그의 영향 밑에 배출된것때문만이 아니었다.

창작활동에서 일련의 계급적제한성을 극복할수 없었지만 부지런하고 근면한 백성들을 멀리하는 방관사대부들을 신랄하게 야유, 조소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해먹어온 고유한 음식에는 썩떡이 있다.

썩떡은 먹는 썩에 날갈가루를 섞어 만든 떡으로서 우리 선조들은 해마다 5월이 오면 햇썩을 뜯어다 썩떡을 만들어 먹었다.

썩떡을 만드는데는 백미가루, 밀가루, 강병이가루 등 여러가지 날갈가루를 쓸수 있다.

썩떡은 그 맛과 향기가 특이할뿐 아니라 사람들의 건강에도 좋다.

이렇듯 우리 선조들은 여러가지 낱알과 나물, 풀 등의 독특한 향기와 맛, 자연색소들을 리용하여 영양가가 높고 맛도 좋으며 보기도 좋은 갖가지 음식을 만들어 식생활에 널리 리용해왔다.

《어제 어디까지 했는가...》, 최근에 일어난 김포비행장 투석미수사건이였지.》

《학생들의 대답소리가 시들하니 들려왔다.》

《박군, 여기 모인 청강생들을 위해 다시 한번 설명해주게. 될수록 간단히.》

《예.》

호기를 뽑는 대답소리에 이어 사건개요가 흘러나왔다.

《성명 유강산, 성별 남자, 년령 92세...》

《부차적인건 그만두고.》

《예, 사건일시 지난 7월 10일, 유강산은 (한)외교부장관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외교부) 장관을 김포비행장에서 돌로 까려고 시도. 돌의 크기와 무게로 보아 사람을 능히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수 있을 정도임. 특수폭행미수 및 특수공무방해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되었음. 이상입니다.》

《됐네. 지금 검찰이나 재판소측에서는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어. 20여년전엔 일본으로 가려던 (대통령) 특사에 대한 탄압투척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에서 돌로 까려고 시도. 돌의 크기와 무게로 보아 사람을 능히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수 있을 정도임. 특수폭행미수 및 특수공무방해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되었음. 이상입니다.》

《됐네. 지금 검찰이나 재판소측에서는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어. 20여년전엔 일본으로 가려던 (대통령) 특사에 대한 탄압투척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에서 돌로 까려고 시도. 돌의 크기와 무게로 보아 사람을 능히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수 있을 정도임. 특수폭행미수 및 특수공무방해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되었음. 이상입니다.》

《됐네. 지금 검찰이나 재판소측에서는 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있어. 20여년전엔 일본으로 가려던 (대통령) 특사에 대한 탄압투척사건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에서 돌로 까려고 시도. 돌의 크기와 무게로 보아 사람을 능히 사망에까지 이르게 할수 있을 정도임. 특수폭행미수 및 특수공무방해혐의로 현장에서 긴급체포되었음. 이상입니다.》

《광란들은 쟁인바치들을 천대하고 하대하면서도 그들이 만든 것을 머리에 정히 띠고다니지 않나. 하물며 그런 사람에게 테의를 차려 말한것이 무슨 망신스러운 일이겠나.》

그 말에 친구는 말문이 막혀버리고말았다.

《자기들이 먹고 입고 쓰고 사는 모든것이 누구의 손에 의해 창조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백성들을 하대하고 천시하는자들을 신랄히 야유조소한 이야기이다.》



본사기자

《자, 그럼 5급공무원들. 어디로 시작해볼가.》 하고 홍교수가 말했다.

《사법연수원》 시절 연수생들을 가르치던 습벽이 있어선지 홍교수는 《법학전문대학》 학생들을 놓고서도 《5급공무원》이라는 낱말을 입에 올리기 좋아하였다. 앞으로 5급공무원이 되라는 소리인지 아니면 5급공무원도 못되는 주제에 하는 식의 비양인지는 모르겠으나 홍교수는 노상 그 말을 입에 달고 살았다.

홍교수의 말이 끝나자 박군이라 불리운 박준표는 기다렸다는듯이 자기가 작성한 기소장을 손에 들고 그 안에 써여진 내용을 읽기 시작했다.

《우선 피고 유강산은 (외교부) 장관을 대상으로 폭행을 시도하였습니다. 아시다싶이 (외교부) 장관에 대한 폭행은 개인의 명의를 뛰어넘어 (국가)에 대한 모독으로도 됩니다. 게다가 범행을 기도한 곳이 공무장소이며 또 돌과 같은 위험한 물건을 폭행도구로 사용하려 한 점을 고려해볼 때 형법 제144조 특수공무방해죄와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죄에 관한 처벌조항에 따라 징역 12년형이 마땅하리라고 보아됩니다. 단지 범인의 범행기도가 결과발생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미수로 그친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는 징역 6년형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 징역 6년형이라...》

안경을 추스른 홍교수가 주위를 둘러보았다.

《심심막막한 소릴 내 하지 않았던가?》

홍교수의 그 말에도 박준표는 대답할 말을 이미 준비해 가지고은듯싶었다.

《형법 제10조에서 처벌할수 없다고 규정된 심심장에 인은 심심장에도 인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없거나 사물을 경정할 능력이 없는 자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범인이 삼분차를 리용하여 비행장에 와서 범행목표로 설

정한 (외교부) 장관을 정확히 가려본 점 그리고 사람을 능히 상해할수 있을 정도의 무게와 크기를 가진 돌을 머리높이까지 들어올렸던 점으로 미루어보아 능력미약에 의한 감경사항으로 될지언정 6년형도 오히려 가벼울수 있다고 선언했는데 여기까지에서 이의있는 사람?》

홍교수의 물음에 교실 한쪽구석에서 손 하나가 썩 울었다.

《말해보시오.》

손을 쳐든 학생은 배우건이다. 어느 무대연출가의 막내동생이 그는 장난기가 심한 축이였다.

《저어, 교수님생년. 나이 90이 지났는데 늙은이에겐 6년형은 너무 과한것 아닙니까?》

《그럼 학생은 어떤 판결이 마땅하다고 보오?》

《물음에 배우건은 열자리에 앉은 학생에게 눈을 깜빡거리고 말을 계속 하였다.》

《키씨가 좋을것 같습니다.》

《키씨?》

《예, 이슬람교파가에선 규탄에 썩여진대로 키씨를

비문하고 자기 나라의 령역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에 대하여 자기 나라의 형벌을 적용하여야 한다는것이 속지주의이고 범인이 자기 나라 사람인 이상 범죄소행지의 여형을 불문하고 자기 나라의 형벌을 적용해야 한다는것이 속인주의입니다.》

《좋아. 박군에겐 가산점수를 주겠소. 하지만 배군에겐 주의를 한번 환기시키요! 자리에 앉소.》

홍교수의 큰소리에 배우건이 두손을 장난스레 펼쳐보이듯 내놓고는 교실안에 정숙이 깰들었다.

《오늘 과제검열에서는 박군이 모범이요. 박군, 자넨 지금 바로 나가 사법부 입두 될것같구만. 괜찮아. 부장검사님의 아들이 피소 다르거든. 앞날이 촉망돼. 하지만 일부 학생들은 그렇지 못하거든. 5급공무원이 될 자격이 없어. 계속 그렇게 놀다가 앞으로 죽벌이도 못할줄 아시오. 하긴 그런 내 상관할바가 아니지. 제 밥그릇은 각자 알아서 잘 챙기도록. 그런 그렇지 못한 학생은... 없소? 모두 같은 생각인가?》

《아무도 없어요? 기소가 있으면 변호가 따라야 하는데. 하긴 뭐 별로 그대랴 하소. 가담은 없어되는 사건이니까 충분히 리해할수 있지. 그럼 좋아, 각자 준비해온 기소장들을 바치도록 하지.》

이렇게 말한 홍교수가 공연히 안경을 추스르며 책속에 눈을 박는 그때 《저요. 이의 있는데요.》 하는 소리가 별안간 교실의 정적을 깨뜨렸다.

어지간히 놀란 홍교수가 고개를 숙우하고 손이 들린쪽을 안경너머로 넋지지 바라보았다.

《누구? 아, 모든것에 대해 항상 무마명해하는 친구. 그럴줄 알았소. 반박이 없길래 난 자네가 오늘 결석한줄로만 알았지.》

손을 쳐든것은 다름아닌 민제식이였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그래, 말해보요. 뭐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이런 기회를 배우건이 놓칠 리 만무하였다.

《아마 형량일겁니다. 그게 지내 작다는건가? 하지만 미수죄로 목을 달아낼수야 없는노릇 아닙니까.》

《용서하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조용하시요. 민군만 입을 열겠소.》

홍교수의 말에 민제식은 교실안이 잠잠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뜻밖에도 단호한 투로 이렇게 말하는것이였다.

《전 완전무죄를 주장합니다. 그 로인은 무죄입니다.》

순간 우우- 하고 벌떼 우는듯한 소리가 교실을 덮쳤다. 홍교수도 저이기 놀란듯 얼굴이 굳어져버렸다. 그러나 얼마 안있어 교수의 입가에 흥미진진하다는듯한 표정이 천천히 떠올기 시작했다.